

재주베, 고래워!

RaonAttē 13<sup>th</sup> MYANMAR YANGON

그 두번째 이야기





# RAONATTI 13 YANGON

## | contents |

### Raonatti Activity

흘랑따야  
쉐삐따  
먀 오꼴라바  
아띠클럽  
음식나눔

### Inside 라온아띠

- ① 4월의 병자들
- ② 불평 워크샵
- ③ 띠잔을 건디는 법

### LOVE House

#### 부록

버터씨의 버터시  
정선생의 쓱쓱 미얀마어

### 다섯의 이야기 essay



## APRIL. 2015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페이스페인팅	2	3 사과 나무 만들기	4 Atti Club	5
6 손 그리기	7 Atti School	8 점선 도형 그리고 칠하기	9 Atti School 페이스페인팅	10 국기 색칠 (미얀마, 한국)	11 띤잔 시작 party	12 Junction Square
13 Sharing happy (한국음식 나눔)	14	15 Doctor's birthday 짜파게티 참사	16 세월호 1주기	17 Y직원들과 식사 모기장 설치	18 Sherlock day	19 Junction Center(모던)
20 염색	21 띤잔(물축제) →	22 울동(텔레비전) 불평위크샵	23 Atti School 환경 경리	24 국기 색칠 (태국, 방글라)	25 Atti Club (세꼬랑)	26 Hledan Market
27 점선 도형 그리고 칠하기	28 점선 도형 그리고 칠하기	29 아빠별 손유희 무지개 칠하기	30 Atti School 환경 경리			





# RAONATTI ACTIVITY 01

단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3곳의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양곤Y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미얀마 청년들과 아띠 클럽'을 함께한다. 수많은 다짐과 계획들, 한달 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 | Hlaingthayar |

매주 월요일 화요일이면 우리는 흘랑따야를 찾는다. 두달 차에 접어 드니 덜컹거리는 낡은 버스도, 도로를 질주하는 라인트럭도 제법 익숙하다. 그러나 시작시간보다 한 시간은 먼저와 우리를 기다리는 천방지축 아디스쿨 소녀들과 코찔찔이 널서리 아이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을 선물한다.



## 4월의 활동

**널서리** - 뽀뽀뽀, 올챙이송 울동  
손 따라 그리기,  
점선 도형 따라 그리고 색칠하기

**아디스쿨** - 자음 복습, 간단한 회화표현  
미얀마.한국 국기 색칠하고 색깔표현  
익히기

※ 조명이 없어 천장 보수 공사를 건의했으나, 이미 오래전 그와 관련 절차에 착수를 한 상태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음.

## 개인 피드백

**애린** : 흘랑따야 널서리 보조를 하면 자연스럽게 마 오골라바와 비교를 하게 된다. 같은 활동을 해도 이곳 아이들은 더디다. 종이접기나 색칠활동도 서툴고, 울동을 따라 부르는 것도 느리다. 띠잔이 끝나고 흘랑따야에 갔을 땐 어색함을 어찌할 수 없어 태초의 상태로 돌아간 듯 했다. 그래서 그런지 랑따야 아이들이랑 더 많이 더 열심히 부대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디스쿨은 간단한 수요조사 후 한국어 수업을하기로 결정했었다





12기는 방과후 학교의 개념으로 진행했지만, 방학인 터라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대도 달랐고 나이대가 다른 친구들(초등학생)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수록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는 게 느껴졌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았다. 그래서 색칠공부나 종이 접기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미스쿨 몇 명의 애들은 수업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와 우리를 기다린다. 그냥 머리를 만지거나, 가위바위보를 해서 부채질을 해주거나 하는 놀거리가 재미있나 보다. 곧 방학이 끝나면 시간대도 변경해야 하고, 그에 맞는 수업 방향도 다시 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덥다. 말을 잃게 하는 더위다. 천장에 팬도 없고, 선풍기도 없다. 그나마 1층은 바람이 조금 불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2층은 바람도 들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 찜질방 같다. 아이들은 1층과 2층으로 나눠 수업을 하다가 간식시간에는 2층으로 올라가 마침 기도를 하고, 집에 가기를 기다린다. 이때 아이들이랑 꼬리잡기를 하거나 부대끼며 노는데, 너무 더워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 π

**종옥 :** 당연히 우리가 함께하고 도와주는 활동이지만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많아서 더 쉬운걸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그리고 1층이 지금도 어두운데 우기 때가 걱정이 된다.  
1층과 2층의 아이들이 다른데 우리가 고정적으로? 아니면 돌아가면서 해야할지 모르겠다.

**한솔 :** 간단한 종이 접기를 하면 따라 하지 않고 접어 달라고 종이를 내게 가져오거나, 색칠을 하는 날이면 색연필을 쥐고 가만히 앉아 있는 아이들이 많다. 색종이를 대신 접어주고 색칠을 같이 해주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가방에 몇 일이나 들고 다니면서 두고두고 꺼내어 자랑을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가 약간 고민이다.  
아미스쿨에는 생각보다 한국어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다. 한시 반이 시작인데 몇몇 아이들은 12시 전부터 찾아와서 수업을 기다린다. 그래서 하루는 1시에 시작을 했는데 한시 반에 맞춰서 온 아이들이 다음 화요일은 몇 시에 시작을 하냐고 줄곧 물어 미안했었던 기억이 난다. 널서리 활동을 마치고 우리도 약간의 휴식과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우리가 점심 먹을 때부터 와서 놀아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너무 덥다)





**선진 :** 마오폴라바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수준의 차이가 보인다. 색칠하기도, 종이접기도,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미얀마글자 진도도. 그래서 진행을 할 때는 답답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 다행이라 느껴질 때도 많다. 뻔하더라도 해왔던 활동들을 이어가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아티스쿨은 항상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준다. 큰 애들이라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도 넓고 한국어에도 관심이 많다. 다만 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비정기적으로 오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한국어보다도 흥미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태규 :** 널서리는 1,2층으로 나뉘어 아이들의 얼굴을 익히기가 힘들고, 조명이 어둡다, 그리고 아이들이 때림. 수업보조도 아이들 수가 많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찾아가면 공부를 안 해서 선생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 방학이라 그런지 아티스쿨에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찾아오고 한국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볼 수 있으나 아이들이 때림. 그리고 날씨가 살인적으로 더워서, 마을을 둘러보거나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흘랑따야 이모저모





# | Shwepyitha |

아띠들은 스스로 페이스 페인팅의 고수라고 자부해왔다. 돌고래, 꽃, 거미, 축구공, 하트 등 웬만한 그림은 손에 익혀 쉽게 그려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게 웬걸. '미얀마 국기'와 '한국 국기'를 요구하는 쉐삐따 아이들 앞에서 단원들의 오만방자한 자부심은 무너져 내리고야 말았는데... 시골벽적 아띠스쿨을 소개한다.



## 4월의 활동

### 아띠스쿨

- 아이들과 함께 사찰 주위 환경 정리
- 자음, 간단한 회화 표현
- 동요 '학교종이땡땡땡'
- 짧은 한국어 대화문 연습
- 미얀마, 한국 국기 색칠하고 색깔 표현 익히기
- 페이스페인팅

## 개인 피드백

한솔 :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찰 안의 교실에서 수업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비가 오면 시끄러워서 말소리조차 들리지가 않고 책상과 의자에 먼지가 수북하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바닥에서 글씨를 쓰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매번 다른 아이들이 와서 진도를 나갈 수도 없고 매주 목요일마다 '밍글라바, 안녕하세요'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제 아이들의 개학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국기색칠이나 종이 접기 같은 다른 활동을 위주로 한국어를 곁들여 아띠스쿨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쉐삐따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전체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의식 개선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쓰레기를 열심히 줌고 돌아가도 너무 방대한 양이라 다음 주엔 도로아미타불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 지친다.

**애린:** 사이트 선정을 할 때, 나는 쉼베따를 활동지에서 제외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아직은 선불리 어떤 곳을 넣고 빼고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뭐가 가능성인지 모르겠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 일곱명 중 절반 이상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채 사찰에 앉아 있었다. 한 번은 네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몇 명이 오던 간에 와준 아이들이 고마웠지만 우리와 동반한 우똘이 아저씨는 골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억지로 불러 모아 자리에 앉혔다. 그럴 때마다 어찌해야할지 답답했다.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는다. 매주 마다 새로운 쓰레기들이 같은 자리에 갱신되어 있다. 물론 이젠 우리가 청소를 하면 아이들이 발벗고 나서 도와준다. 그리고 한번은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으니 어떤 아이가 과자를 먹고 남은 쓰레기를 땅바닥이 아닌 쓰레기 봉지에 버려주었다.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의식개선을 해야 하는지 더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종옥:** 우리가 청소를 한다고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쉼베따에서 청소를 했을 때의 뿌듯함이 무색할 정도로 쓰레기의 변화가 없다. 쓰레기통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구역을 만든다 해도 큰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다.

**선진:**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 하에 아띠스쿨을 시작했으나 요청한 아이들이 오지 않고 흥미가 없어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 학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도 막막하다.

환경정리를 하고 돌아가면 일주일 뒤 다시 사찰 앞에 쓰레기가 쌓인다. 두 달째 접어드니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인식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

**태규:** 아띠스쿨 처음에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해서 시작했지만 그 아이들은 승려가 되버리고 Y스텝과 띠인과 쉼베따 사찰학교 선생님이 불러 모은 아이들만이 참여해서 참여인원이 매번 고정적이지 않고, 배우는 쪽이나 알려주는 쪽이나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 쓰레기 청소도 처음에는 아이들과 줍기도 했었는데, 비가 오거나 클리닉 차가 안 오는 날에는 아띠스쿨을 끝내고 바로 출발해야 해서 흐지부지 돼버렸고, 아이들이 매번 버려서 쓰레기가 리셋 되어있다. 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릴 통이나 비닐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동 시간이 왕복 5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적은 것 같다.



쉐비다 이모저모





# | North Okkalapa |



## 4월의 활동

- 페이스페인팅
- 사과 접어 나무에 붙이기
- 점선 도형 따라 그리고 색칠하기 (도형 표현 익히기)
- '미얀마.한국 국기 색칠하기
- 동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 텔레비전에 나온 나의 모습 그리기
- 인접국(방글라데시, 태국)국기 색칠하기
- 손유희 '아빠별이 올라갑니다' 미얀마어로 번역
- '아빠별이 올라갑니다' 함께 부르기
- 무지개 색칠하고 별 그리기

## 개인 피드백

**종옥 :**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노력에 감사하다. 그 노력 덕분에 더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진 :** 널서리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활동들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다. 낯선 활동들도 이제는 잘 따라한다. 모자이크를 할 때는 직접 풀칠하겠다고 해서 아이랑 싸울 뻔 했다. 슬슬 활동준비가 부담스러워 시범적으로 주 1회 방문할 예정이다.

4월부터 낮잠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낮잠을 자고 있다. 어떤 날은 팬이 고장 났는데 너무 더워서 잠도 안 왔다. 어떤 날은 갑자기 비가 내려서 무섭다며 잠을 못 잔 적도 있다. 재밌는 곳이다.

가는 길에 쓰레기 더미가 있다. YCDC는 왜 그곳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걸까.





**애린 :** 마 오폐라바는 랑따야 보다 수도 적고, 그래서 더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처음엔 매번 간식을 챙겨주시는 선생님들께 죄송스러웠다. 우리가 이방인 같고, 그런 느낌들이 항상 불편했는데, 이제는 먹은 만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엔 낮잠도 쪽방에서만 자고, 도착하면 우리 수업시간이 될 때까지 쪽방으로 달려가 앉아 있곤 했는데, 이젠 낮잠도 같이 자고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앉는다. 아이들의 변화도, 나의 변화도 느껴진다. 눈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거나 다가와 앉으라고 해도 웃고 말던 아이들이 이제는 말도 걸어주고, 슬쩍 다가와 손도 잡는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서 즐거운게 아니라, 같이 낮잠 자고, 간식 먹을 수 있는게 즐겁다.

반면, 날씨가 너무 더운 탓에 마을을 둘러보기로 한 활동이 정체되어 있어 고민스럽다.(다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다) 한번은 우리가 마 오폐라바에 있는 어떤 한 집을 얻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한솔 :** 두 달 간 간단한 미술 활동은 거의 다 했고 동요도 3개나 가르쳐 주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4월의 마지막엔 울산에서 동화구연 선생님께 배웠던 손유희를 미얀마어로 바꿔 아이들에 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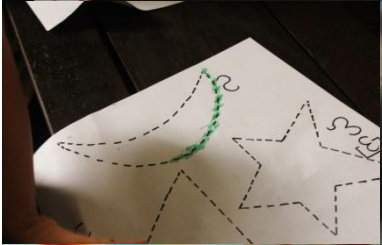
그랬더니 아이들이 훨씬 좋아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중에도 혼자 흥얼흥얼 거리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하시는 모습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에서 했던 강아지똥 동극이나 풍선아트를 활용했던 아띠나라 이야기도 빨리 미얀마어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태규 :** 아이들이 랑따야 애들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수도 적어서 보다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랑따야에서는 아이들의 수가 많아 선생님들과의 얘기할 시간이 적은데 마 오폐에서는 선생님들이 간식을 챙겨주시면서,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먼저 다가와 주신다.





# 며 오플라바 이모저모





# | Atti Club |

매주 토요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 Atti Club - 양곤 YMCA 5층 도서관



## 4월 4일, 아띠클럽 재결성

4월 첫째 주, 아띠클럽 원년멤버들이 다시 모였다. 12기의 활동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열린 첫 만남은 자기소개부터 시작했다. 안면이 있던 스마일 씨와 그의 네 친구, 그리고 또 다른 멤버 보미와 동생 띠하, 앞으로 못 나오겠지만 한번 와보고 싶어 참여했다는 설령까지.

서로의 얼굴 그리기를 계획했으나 즉석에서 한국어 이름 짓기를 하며 청년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다. 미얀마 이름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들을 위해, 쏘빠잉통에게는 '최고'라는 이름을, 포운뚜레에게는 '태양'이라는 이름을, 쏘윈투에게는 빛을 의미하는 한자가 들어간 '광희'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아띠클럽을 기억하며 다시 찾아준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드디어 아띠클럽이 다시 오픈했다.

## 새로운 얼굴들

4월 25일, 아띠클럽 시작시간인 3시가 채 되기도 전에 도서관에 Y스텝 솔리와 아저씨가 찾아왔다. 아침부터 아띠클럽이 몇시에 여냐며 관심을 보여왔던 둘을 위해 종옥단원과 태규단원은 준비한 Dialog를 펼쳤다. 페이스북으로만 연락을 취해왔던 똘똘도 만날 수 있었는데, 한국어로 대화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녀를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알고 보니 우리를 휘어잡을 정도의 포스를 지닌 똘똘, 당혹스러울 정도로 한국말을 잘해서 말싸움으론 이기질 못한다. 첫모임 이후로 찾아와준 최고와 태양, 보미와 뉴페이스 추이와 추이의 동생 덕에 다시 자기소개를 시작했고, 긴 띠잔 후에 다시 찾아준 태양과 최고는 첫 모임보다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 한국어실력을 뽐냈다.





## 얼떨결에 나선 첫 나들이, 19번가 세꼬랑

양곤에서 가볼만한 곳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세꼬랑’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아띠클럽이 끝나고 함께 가자는 뉘뉘. 다른 멤버들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얼떨결에 19번가로 향하게 되었다. 우리 5명이었다면 절대 맛볼 수 없었던 환상의 맛 ‘왓따레이’, 카우쇄, 그리고 고대하던 꼬치!까지 맛볼 수 있었다. 특히 베이컨말이는 삼겹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미얀마에서 잠시 고기에 함께 구워먹는 버섯의 맛을 느끼게 해주었다. 신이시여...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청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펍과 CD가게, 포장마차들이 즐비한 19번가를 진정 즐길 수 있었다. 그날 닫는나눔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오늘같이만 되게 해주세요...

## 반성합시다, 더욱 열심히 준비할게요

5월에 접어들며 유난히 수업이 개강한다거나 만달레이에 가있다는 등의 이유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었다. 그럼에도 찾아와준 뉘뉘와 추이, 보미와 아띠클럽을 진행했다. ‘취미’를 주제로 프리토킹을 준비했으나 몇몇 멤버들이 프리토킹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치밀하게 아띠클럽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였다. 특히 일하는 와중에 휴가를 써서 아띠클럽에 참여하였다는 추이의 사연을 들으며 우리의 미숙한 진행을 반성했다. 뉘뉘로부터 이제까지 진행된 12기의 아띠클럽 수업방식을 다시금 확인하고 한국에 있는 12기에게 아띠클럽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다시 차근차근 정립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 | Sharing Happy |

‘요리를 하는 것은 곧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고 어떤 단원은 말했다. 박물관에서나 보았을 법한 이곳이 바로 우리 집의 주방. 행복을 나누기 위해 30인분의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파전과 고구마 맛탕을 만들어 냈던 battle field를 소개한다.



**Q.** 대체 요리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것도 30인분이나 말이에요.

**애린:** 원래 산 주로 여행을 가는 것이 띠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긴 시간동안 떠나 있기도 하고, 3월에 바로 시작된 활동 탓에 팀원들은 많이 지쳐 있었죠. 결국 예산 문제로 산주로의 여행을 포기하고, 양곤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진:** 저희는 그저 한국밥이 먹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꿈에 그리던 음식 리스트를 작성해보았죠. 파전, 김치찌개, 떡볶이, 잡채, 제육볶음....

혹시나 우리에게 주어진 식비가 있지 않을까 해서 현지 간사님인 산드라를 찾아갔는데, Y 식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그런데 아니, 글썄... Y식비를 사용하는 대신 Y스텝들 전부 함께 먹어야 한다면 30인분 정도에 맞게 재료를 작성해달라고...(울먹)

**종욱:** 하루 3끼를 매일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음식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만 먹는 것이 아닌 Y직원 분들에게 대접하고 함께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Q. 숯을 쓴다고 하던데, 요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애린:** 저는 숯 뿐만 아니라 주방 자체가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숯의 가장 큰 단점은 불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덥고, 뜨거워요. 셰프님은 닭도 튀기고, 돼지고기도 튀기고 잘만 튀기시던데 고구마를 튀하하는 순간, 모든 비극은 시작되었어요.

**선진:** 가관이었죠. 맛탕을 하던 날이 떠오르네요. 아주 커다란 가마솥 안에 놓여있던 고구마들은 연기에 가려져 색깔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연기를 뚫고 겨우겨우 고구마를 건져보았는데, 그제야 숯을 이용하니 불 조절이 안돼서 고구마를 몽땅 태워먹었다는 걸 깨달았죠.





**종옥:** 12기와의 인수인계 때 숯을 쓴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가스가 아닌 숯의 주방이 궁금했는데 여러 의미에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툴게 숯을 사용할 때 저를 보시며 불안해하시던 셰프님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Q. 양파 깎기가 특히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선진:** 왜, 작은 고추가 더 맵다잖아요... 여기 양파는 한국양파보다 더 작고 보랏빛이 나는데 칼질 한번에 눈과 코가 너무 시려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나요. 저는 그날따라 안경을 쓰고 양파를 깎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매운 냄새가 미얀마 먼지와 안경을 뚫고 눈 속으로, 제 홍채와 시신경 세포 하나하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Q. 제육볶음용 고기를 미얀마에도 파나요?**

**선진:** 아뇨. 여기 돼지고기들은 그냥 다 덩어리 고기들이에요. 그럴듯한 제육볶음으로 보이기 위해 저희는 고기 먼저 손질해야 했죠. 미얀마 고기에는 껍데기에 털까지 달라붙어 있어요.

**애린:** 종옥오빠랑 태규가 손질했는데, 냄새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태규:** 그냥 손으로 고기 비계를 때어내고 털을 하나하나 뽑으면서 해탈을 한 것 같아요.

**종옥:** 맨손으로 고기를 손질하고, 털을 하나하나 다 빼냈어요. 요리가 다 끝나고 손을 씻어도 한동안 없어지지 않았던 냄새였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Q. 된장찌개 끓이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애린:** 없어요. 원래 울산 지역훈련에서는 ‘조개 맛 된장’을 사서 찌개를 끓였었는데, 그 된장찌개는 조개가 없어도 조개 맛이 났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그냥 된장을 팔더라고요. 그냥 물에 잘 풀어 넣는 것 뿐입니다.

**Q. 파전에 파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한솔:** 저희 원래 당근호박전인데?? 파는 그냥 옆에 있어서 조금 곁들여 넣은거예요^^!(발뺨)

**Q. 한솔단원은 파전을 몇 개 부치신건가요? 소감은?**

**한솔:** Y스텝들 뒤편으로 30장이랑 저희 먹은 거랑 중간 중간 맛본거랑 합치면 거의 40장은 부친 것 같아요. 한 열 개가 넘어가니까 양조절을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지요. 처음에 부친건 거의 떡 수준이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리고





야채가 부족해져서 당근이랑 호박을 마구 썰어 넣었어요. 저 때문에 당근호박전이 되었어요. 죄송해요. 다 제 탓입니다. 아니 근데 맛만 있으면 된거 아닙니까?

**Q. 태규단원은 고구마맛탕과 파전을 만들던 날 눈에 다래끼가 나서 눈이 아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께병설이 있던데.....**

**태규:** 솔직히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눈이 간지러웠고 Y직원들의 눈 건강을 위하여 가지 않았습시다.

**애린:** 전 아직도 께병이라고 굳게 믿어요. ^^

**Q. 애린단원은 비계를 따로 조물딱 거려야 했다고 들었는데, 비계의 촉감은?**

**애린:** 제 뱃살을 어루만지는 느낌이었어요. 한동안 손에서 고기 비계 냄새랑 고추장 냄새가 빠지지 않아 고생했지만.... 저희는 저희가 먹기 좋게 비계를 다 걸러냈는데, 셰프님께서 버마 사람들은 비계를 잘 먹는다고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만들어 나눠서 먹으려고 한건데, 너무 우리만 생각했구나 싶었습니다. (반성)

**Q. 종옥 단원, 고구마를 튀기다가 다 태워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그랬어요?**

**종옥:** 죄송합니다. (할말없음) 불조절이 안.....

**Q. 맛탕 요리 어떻게 완성했나요. 불조절이 안되는 숯이라 설탕이 다 타버렸다던데...**

**선진:** 설탕을 녹이는 건 무리겠고, 그냥... 발라버려야지 했어요. (웃음) 한번 익힌 고구마에 식용유와 설탕을 비비니까 그럭저럭 맛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Y스텝들 사이에서도 인기만점이었고요.

**Q. 요리를 통해, 아니 '행복'을 나누신 소감을 말해주세요.**

**애린:** 앞으로는 반찬투정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고군분투해서 만든 요리를 와이 스태프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숯을 사용한 요리는 한국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었던 가스레인지 요리와는 들어가는 시간도 정성도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셰프님이 얼마나 땀흘려 가며 만들었을 요리인지 온 몸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된장찌개나 제육볶음, 파전 등 한국요리를 맛있게 잘 먹어주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종옥:** 처음에는 단순한 요리였지만, 나눔이 되고 행복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요. 많이 서툴렀지만 팀원들과 같이 식재료 구입부터 마무리까지 다 해냈다는 것에 뿌듯합니다. 그리고 셰프님에 대한 감사함도 다시 한 번 배웠어요.

**태규:** Y직원 30인분 음식을 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는 누나들을 뜯어말리고 싶었고, 요리를 시작할 때도 귀찮고 짜증났지만 요리를 다한 뒤에 Y직원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즐거웠습니다.

**한솔:** 식탁에 질긴 고기가 올라오거나 반찬이 두 개 밖에 없을 때 항상 불평을 했었는데 주방 사정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아, 여기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라고 단번에 이해가 되었어요. 시장에도 직접 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오전 내내 준비해 음식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리웠던 우리 음식을 먹게 되어 좋았습니다. 우리 팀원들도 먹고 조금이나마 힘을 낸 것 같아 다행이에요.

**선진:** 시장에서 덩어리 고기밖에 팔지 않는 걸 보고, 커다랗고 움푹한 냄비밖에 없는 주방을 보면서 우리가 먹는 요리들이 왜 그렇게밖에 요리될 수 없는지를 깨달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섯이서 30인분 하기도 힘든데 매일같이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셰프님이 존경스러워졌어요. 한국 음식이 입맛이 맞지 않아 먹지 않는 직원들도 보면서, 셰프님이 만들어 주시는 음식에 불평불만을 가지면 얼마나 마음아파하실까 생각했어요. 행복을 나눠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반성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Q. 뽀라? (행복하세요?)**

**A. 전원: 뽀레.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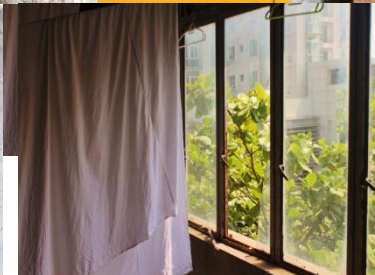
-SHARING HAPPY THE END-





## 주방 이모저모

게스트 하우스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방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주방은 구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게스트하우스인 만큼 빨래와 세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편리한 가스레인지도, 압력밥솥도, 시원한 에어컨도 없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간 ‘밥’이 지어지는 공간. 주방의 모습을 담았다.





## 시장 이모저모

꽃을 파는 아주머니, 닭을 파는 아저씨, 채소를 파는 청년, 락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물총이 뒤섞인 시장의 정겨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 보았다.







## INSIDE RAONATTI 02

같은 순간, 같은 얼굴, 같은 웃음소리로 웃는 그들. 그들의 사진을 보면 제법 오래된 가족사진 같기도 하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생활이야기를 전한다.



# INSIDE raonatti - 4월의 병자들



4월이 되면서 매일 40도가 넘는 찌는 듯한 더위에 우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앓아 눕고야 말았다. 도착하자마자 종옥단원이 한동안 앓아 누웠고, 선진단원은 반복되는 설사, 애린단원은 반나절만에 회복하긴 했지만 설사와 몸살을 앓았다. 태규단원은 눈, 허리, 발목, 머리 온 몸에 고통을 호소했다. 가끔 혼자 밥먹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생각했다. '이게 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비용'일 거라고.

**Q. 아팠을 때 얼마나 더 못 생겨졌나요?**

**한솔 :** 거울을 안봐서 모르겠는데요..

**애린:** 한솔언니는 평소보다 더 예뻐진 것 같은데. ㅋㅋㅋㅋ 태규는 얼굴이 붓고, 종옥오빠는 원래 못생겨서 할말이 없어요.

종옥 원래 얼굴이 잘 붓곤 하는데 아플 때는 정말 심했습니다.(하하;;)

**Q. 아플 때 어머니가 생각난다고들 하는데 어머니가 자주하시는 욕은 무엇인가요?**

**애린:** 어머니가 욕은 하시진 않지만 '그만 좀 먹어라' 라고 하는 잔소리는 많이 하세요.

**종옥:** 동민 간사님은 운동 더하라고 하시던데요 ^^ 이 날씨에, 그건 욕이나 다름없어요.

**Q. 평소에도 뭔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아팠을 때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은?**

**한솔 :** 저는 목이 토마토만치 부어가지고 물조차 못 마셨는데..... 음식은 사치였어요. 모두가 췌빠따에 가고 혼자 점심 도시락을 먹는데 삼킬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눈물)

**Q. 왜 아팠나요?**

**한솔 :** 아니 이게 다 더위 때문이라니까요?? 4월이 시작 되자마자 목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거의 한 5일 밤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날이 너무 덥고 방에선 에어컨을 세게 틀고 있으니 몸이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태규:** 날씨가 미쳤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어지러움을 느끼는 체력이 아닌데, 쓰레기 줍다가 머리가 핑 돈 적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지고 일주일에 5일을 매일매일 사이트에 가다보니까 체력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종옥:** 목이 답답했는데 낫겠지 싶었죠. 근데 새로운 환경에 제가 적응하는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Q. 아플 때 Y직원이나 산드라가 찾아와서 어디 아프냐고 묻고 계속 찾아왔을 때 심정은?**

**애린:** 더러운 방 상태를 보고 잔소리를 쏟아내셨어요. 쓰레기는 왜 안버리냐, 물통은 왜 안바꾸냐 등등. 엄마예요. 엄마.

**Q. 앞으로 언제 아플 예정이신가요?**

**한솔 :** 또아(이)가 약간 나레(아프다)했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다 한번씩 아팠는데 이제 선진 언니가 아플 차례라고 생각됩니다.

**태규:** 선진누나 ㄱㄱ.

**Q. 팀원들이 아플 때 잘 챙겨줬나요?**

**선진:** 죄송해요. (무관심이 약이라던데.)

**애린:** 죄송해요. 챙겨준다고 챙겼는데, 서운했을까요. 흑흑.

**종옥** 네, 팀원들이 약과 뜨거운 물을 가득 챙겨주어서 더 빨리 다을 수 있었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애린 :** 라온아빠 30명 모두가 각자의 파견국에서 아프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돌아와 만나요!

**한솔 :** 햇빛 아래 서 있으면 정말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분노) 여러분이 무얼 상상하시든 그 이상입니다. 이제 곧 우기가 찾아오면 좀 괜찮아지려나 싶어요ㅠㅠ 우리 모두 화이팅!!!!!!



# INSIDE raonatti - 불평 워크샵

매일 40도 가까이 치솟는 평균 기온과 3시간이 훌쩍 넘는 이동 시간. 기나긴 띠잔의 연휴가 우리에게 준 것은 고갈된 체력과 피로가 잔뜩 담긴 후유증 뿐이었다. 안에서 끓어 오르던 불만을 주체할 수 없었던 아띠들은 약간의 알코올과 스케치북을 들고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 안에서 생긴 불만과 불평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33% 오후 19:28

<그룹채팅 5



김애린 만마흑조

난 점점 못생겨지는 것 같아서 불만스러워...

1



정태규 잃어버린돈은반드시돌아온다



1

김애린님이 퇴장했습니다.

이한솔님이 김애린님을 초대했습니다



김애린

ㅋㅋㅋㅋㅋㅋㅋㅋ안해주면 뺄뵈

1



홍선진 외롭다.짜파게티섞어먹을 사람하나없는이곳엔술너뿐

아누가안읽고있냐

1



이한솔 이쉐이비에♥네풍비엔♥ 아가메메♥보쫂우♥자기♥

ㅇ 나

1

오빠 빨리빨리안읽냐냐 —

1

오빠먼저

1

불평애기해바

1

17% 오후 19:35

<그룹채팅 5



최종욱

읽고있어~~

0

난우선 정전, 단수, 샤워(뜨거운물), wi-fi, 식사시간(특히아침), 문광광!세게달는것이 불만이라면 불만이야^^

0



정태규

맞아요 누나들 문 진짜 세게 달을때 미치겠어요 진짜

0



홍선진

야우리방이랑같은힘으로달는데 그문이 좀이상한거같은데?

0



이한솔

ㅇ 냐 대걸레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줘서 방바닥청소를 못하는 게 말이나 되냐

0

버스정류장도 너무 멀어— 밥도넘적고 우리가무슨개미냐

0

티스폰으로 밥먹는팀 나와보라그래—

0



김애린

난...체중계와 커피포트가 필요해...

0

그리고 아침밥이랑 런치박스는 왜 제때제때 나오는 법이 없냐고!!!!

0



# <그룹채팅 5



홍선진

난세탁기하루만쓰고싶다빨래 할때마다빠가가루될거같어



이한솔

태규야 활동 불만있음 얘기해바+라



정태규

전 버스타러가는것도미쳤고 버스도 미친거같아요



이한솔

ㅋㅋㅋㅋㅋㅋㅋ야오플라바 노답 매일아침이 아찔함ㅁ



김애린

나는 우리가 교육전문가도 아닌데 교육현장에 투입되는게 너무 부담될까?!?!!

내가 뭐하는지도 모르겠어



이한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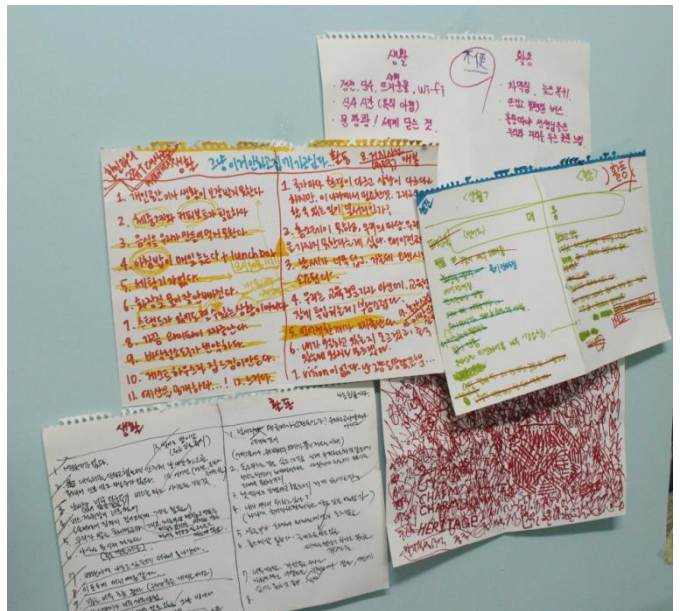
나도그래애린이 ㅎㅎㅎ

난널서리가왜 국제자원활동인지이해가안된다



홍선진

난이제 여기Y가 뭐하는곳인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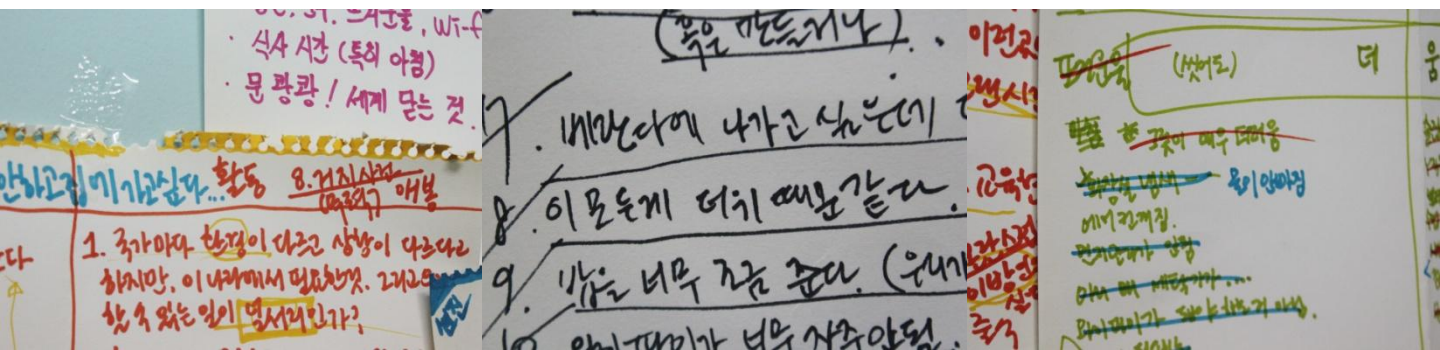
불만을 해결해보고자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던 고민 워크샵. 4월이 끝나가는 지금은 이 찰나의 고민이 모조리 사라지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해결 방안을 찾은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아침밥이 매우 늦음  
⇒ 스텝들에게 변경된 출발시간 전달
2. 화장실 배수가 전혀 안됨  
⇒ 다음기수 오기 전까지라도 보수할 수 있도록 건의
3. 악기 배우고 싶음  
⇒ 기타를 배울 수 있는 청년 물색  
⇒ 솔리!

이후 대걸레를 영어로 서로 몰라 방바닥청소를 못하고 있던 여자단원들은

⇒ Y 내 대걸레 훔쳐..ㅋㅋㅋㅋ키고 돌려줌 & 애린단원의 비싼 스포츠타월(유명스포츠브랜드 L사) 희생





# INSIDE raonatti - 띠잔을 건디는 방법

미얀마의 새해가 밝았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주하게 움직이던 미얀마의 하루가 멈추고, 시원한 물축제가 시작된다. 거리의 상점과 관공서는 문을 닫고 10일간의 기나긴 연휴에 들어간다. 모두가 지난해의 악귀를 씻어 내리는 의미에서 '물'을 뿌리는 물축제를 즐길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이런 황금연휴를 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건디느냐고 의문이 생길 수 있겠다. 직접 물어보시라-



## 띠잔의 첫 경험, 시장

띠잔의 첫 날 아침, 우리는 그 동안의 Y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해먹고 싶어 요리를 하기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시장을 방문했다.

우리나라의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에 낯설지 않았고 정겨웠다.

고기와 쌀, 야채들을 사며 벌써 요리를 다 만든 듯 들떠있었던 아띠들,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그림자가 다가왔다. 바로 우리에게 뿌리는 물 한 가득. 이곳 사람들과 다른 느낌을 지닌 아띠들에게 첫 물세례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즐겁게 물을 뿌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 덕분에 시원하게 시장을 다녀올 수 있었다.

## 깊어가는 밤, 우리들만의 이야기

함께 하는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은 아띠들. 그런 그들에게 술과 함께 하는 대화 시간은 너무나 재미있고, 웃음이 넘친다.

704호 여자 방에 모여 왁자지껄, 박장대소했던 이야기들. 두근두근했던 첫 사랑 이야기부터, 라온 아띠 다른 팀들의 모습에 대한 상상, 미얀마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생각, 돌아가서 하고 싶은 내가 바라는 꿈, 그리고 친한 친구와 형제 자매 이야기 등등 여러 이야기 속에서 서로 배우고 깨닫고 웃으며 즐겼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털어놓으며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아띠들이 될 것이다.





##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

찐잔 기간 중 우리나라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날이 있었다. 4월 16일, 바로 세월호 1주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시간의 무색함을 느끼고 나의 삶, 나의 생활에만 살아 잠시, 아니 오랫동안 잊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의 슬픔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했다.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띠들도 각자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절대 남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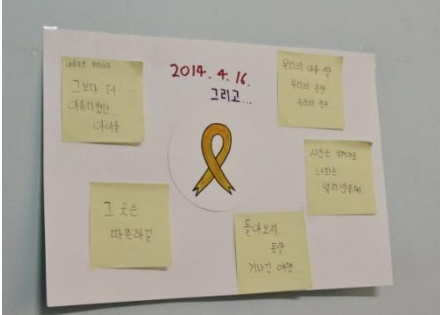
진실이 밝혀지길, 그리고 가족들의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 배고파 배고파, 그리고 배고파!

발랄하고 밝은 여자 팀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바로 “배고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팀원들까지.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 아띠들, 매일 먹는 밥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찾기 위해 식도락 여행을 떠났다. 정선 스퀘어 리틀도쿄에서의 라면, 정선 모던 유가네에서의 닭갈비와 냉면, BBQ에서의 치킨까지. 우리 삶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 소중한 시간. 남은 시간 동안에도 맛있고 별난 음식을 즐기기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근데 벌써 또 갈 곳이 정해졌다는 말이 있던데….







The image shows the letters 'YMCA' in a large, bold, sans-serif font. The 'Y' is red, the first 'M' is blue, the 'C' is yellow, and the 'A' is black. The letters are set against a plain, light-colored background.

## LOVE House 03

미얀마는 법적으로 외국인의 거주나 숙박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 국가가 지정해 놓은 기관에서만 외국인이 머물 수 있으며 집을 얻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때문에 우리는 양곤 YMCA가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머물고 있다  
미얀마 생활 두 달 쯤, 이제는 '집'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에게 익숙해진 Y게스트 하우스 이들이 지지고 볶는 703호와 704호는 어떤 모습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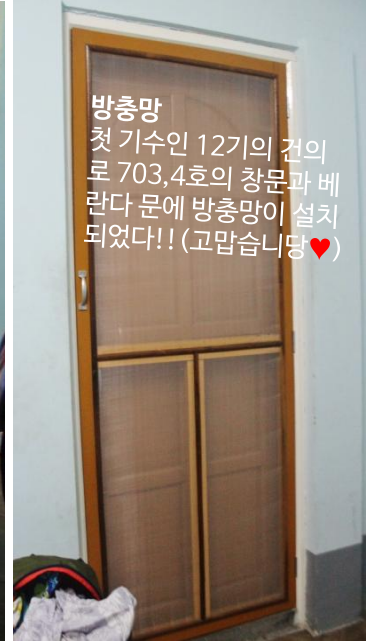


# LOVE House- 703호

팀의 말이 종옥 단원과 막내 태규 단원이 살고 있는 703호



703호 전경  
남자 방문을 열면 언제나 같은 풍경이다.  
(사진 찍는다는데 쳐다보지도 않음..)



방충망  
첫 기수인 12기의 건의로 703,4호의 창문과 베란다 문에 방충망이 설치되었다!! (고맙습니다♥)



남자 방 화장대  
남자들에게 도무지 쓸모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매일 밤 배가 고프을 때면 어김없이 종옥 market이 열리고 단원들은 이곳에서 라면을 구입한다.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여자 단원들이 외출을 하거나 옷을 사기라도 하면 전신샷을 봐야 한다며 수시로 들락거리기도 함.



욕실 온수기  
날도 더운데 그냥 찬물이 시원하다



이들의 미니 냉장고



책상  
절대 치우지 않아요  
어지러움의 미학이랄까



3호 베란다  
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더위



# LOVE House- 704호

그렇다면 여자 단원들이 생활하는 704호는 어떤 모습일까? 703호보다 훨씬 넓고 (상대적으로) 깨끗해서 아띠들은 주로 이곳에 모여 게임을 하거나 달는 나눔을 하고 약간의(?) 술을 즐겨 마신다.



애린이의 공주침대  
 용수철이 느껴지는 우리의 침대  
 처음엔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결리거나 온몸이 쭈셨지만  
 이제 마치 용수철과 처음부터 한몸이었던 듯 꿀 잠을 잠



우리의 빛나는 냉장고  
 (3월 보고서 시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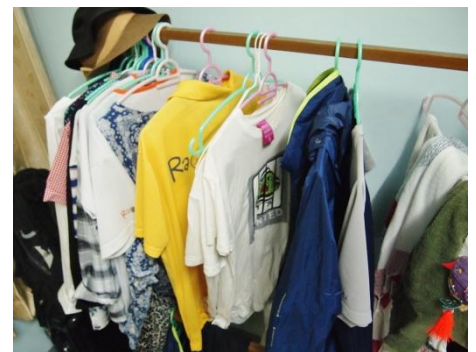
704호 갤러리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애린 단원과 한솔 단원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 덕분에 선진 단원도  
 숨겨져 있었던 미술 재능을 찾아냄



3월에 진행했던 인생곡선  
 세계지도와 고민 나눔  
 지역 훈련 때부터 계속되는 우리의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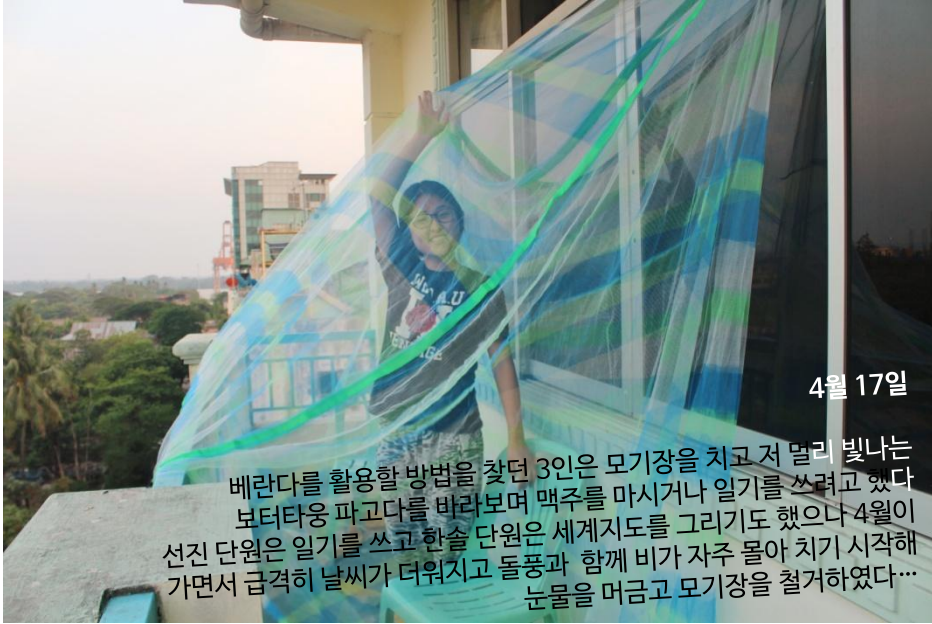
우린 마트에서 이걸 샀고  
**얼음**을 얼려 먹는다!!!!!!  
 부럽지.





# LOVE House- 704호

704호 베란다와 아띠갤러리 엿보기



4월 17일

베란다를 활용할 방법을 찾던 3인은 모기장을 치고 저 멀리 빛나는 보터타운 파고다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거나 일기를 쓰려고 했다. 선진 단원은 일기를 쓰고 한솔 단원은 세계지도를 그리기도 했으나 4월이 가면서 급격히 날씨가 더워지고 돌풍과 함께 비가 자주 몰아 치기 시작해 눈물을 머금고 모기장을 철거하였다...



아이처럼 좋아하는  
우리의 맘언니



20150416 세월호 1주기 추모



보고서를 만들거나 일기를 쓰는 책상  
(사실 주로 라면을 먹거나 설록을 보거나 커피를 보고 뿌나를 보고 그사세를 본다ㅎㅎ)



대청소한 날



팔이 없는 우리의 맘언니

그림인가 사진인가



# LOVE House- 5층 도서관

우리는 매일 이 곳에서 밥을 먹고 회의를 한다.



5층 복도 우리의 Wi-fi Zone  
그러나 되는 날보다 안되는 날이 더 많음.  
모기소굴. 정전이 되면 와이파이도 같이  
끊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만연니 감자는 나의 것



나이를 증명하는  
선명한 부황 자국

## ★티스푼★으로 밥 먹는 현장

이제 손가락이 있으면 기뻐할 정도.  
손가락을 가져오면 되지 않냐, 주라고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곳의 전달 체계는 매우 이상하여 손가락을 부탁하  
면 30분이 걸리기도 함. 어디에 있는지도 모름.이상한 서랍에서  
꺼내기도 하고, 그냥 있는 티스푼으로 먹는 게 마음이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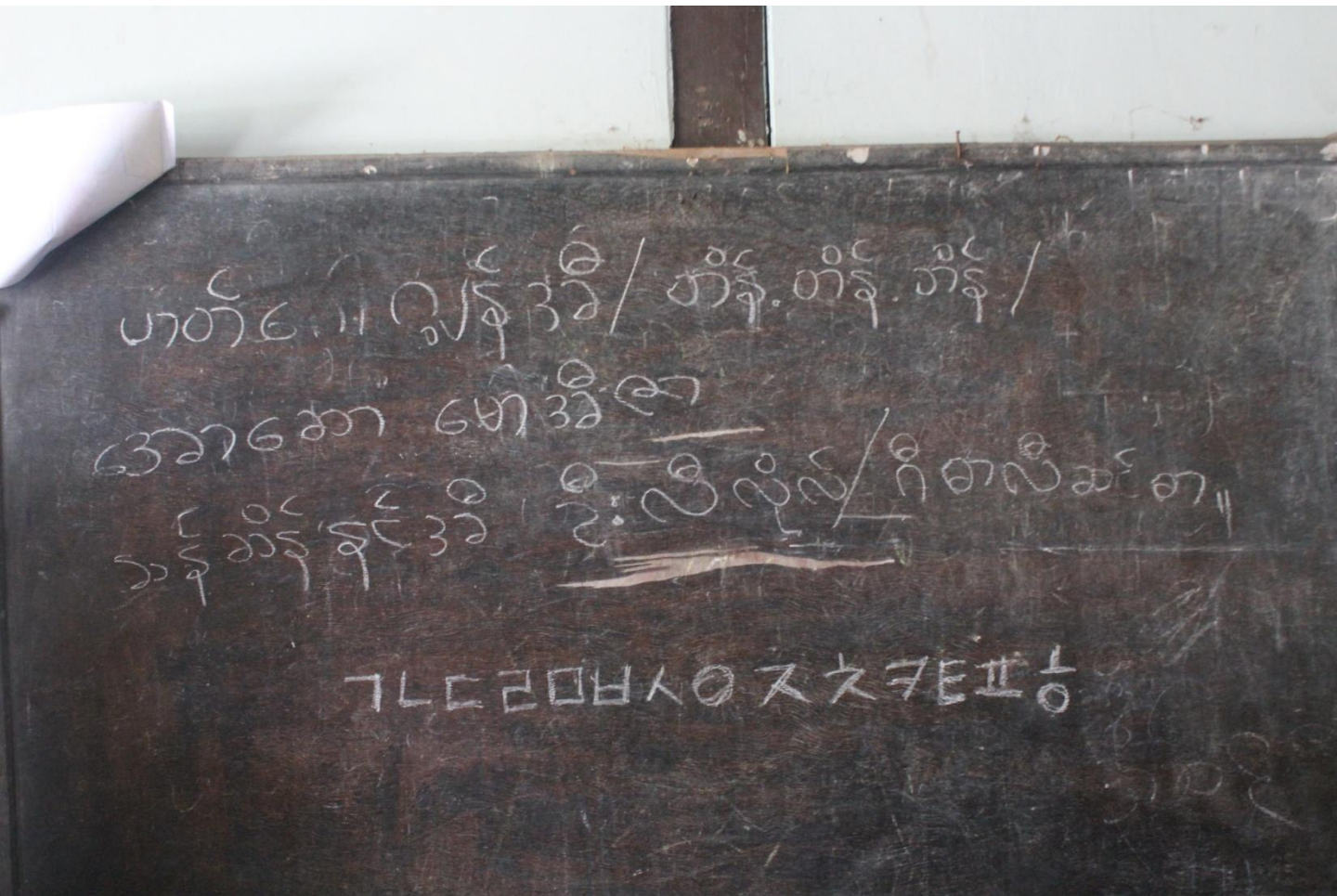




*Mr. Butter's butter poem*

## 버터씨의 버터시

길거리의 아주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에 잠기는 감성주의자.  
느끼함은 덤으로 가지고 있는 그가 감성 충만한 메시지를 전한다. | 최종옥단원



### 주고 받음

주고 받는다.  
마음 속에 추억을  
미소 속에 이야기를  
나를 위한 선물인 듯  
마냥 행복만으로 가득 찰 것 같은 순간들

주고 받는다.  
가시 박힌 상처를  
가슴 치는 아픔을  
나만 힘겨워하는 듯  
그저 시련으로 뒤덮인 듯한 시간들

그러나 마냥 그저 좋을 수도 싫을 수도 없는  
우리네 이야기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주고 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묻듯어 간다.



# Drunken Gyu

## 쑥쑥미안마어



지난 호에 웬만한 표현들은 다 소개하여, 이번에는 유별사와 요일, 보다 더 기본적인 단어를 담아 보았다.

### [유별사]

X 가웅(X마리)

X 쿠(1개)

X 췌(1컵)

X 씨(1대)

X 사잉(가게)

X 브웨(접시)

X 유웨(장, 잎)

### [요일]

떠닝가눠네(일요일)

떠닝라네(월요일)

잉가네(화요일)

보더후네(수요일)

짜다버디네(목요일)

따욱짜네(금요일)

싸네네(토요일)

### [색깔& 계절]

어니 야웅(빨간색)

어와 야웅(노란색)

어파 야웅(파란색)

어퓨 야웅(흰색)

어세인 야웅(초록색)

어메 야웅(검정색)

커안 야웅(보라색)

레이몽 야웅(주황색)

눠야디(여름)

모야디(우기)

사웅야디(겨울)

### [손유희] - 번역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페페 쟈가 뗏 뚜아데 메메 쟈가 뗏 뚜아데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가웅깐 흐마 뜨웨 짜데 피에피에 신 라데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가웅포 흐마 타잉말라 마 짜잇부 마 짜잇부 짜웃  
데(머리 위에 앉을까? 싫어 싫어 무서워)

버콩 흐마 타잉말라 마 짜잇부 마 짜잇부 초짜데  
(어깨 위에 앉을까? 싫어 싫어 미끄러워)

첿 포 흐마 타잉말라 마 짜잇부 마 짜잇부 아데  
(배꼽 위에 앉을까? 싫어 싫어 간지러워)

두 포 흐마 타잉말라 짜잇데 짜잇데  
(무릎 위에 앉을까? 좋아 좋아)



열심히 율동을 알려주고 있는 아띠들



다섯의 이야기

HANSOL AERIN SEONJIN JONGOK TAEGYU

VENEN





| RAONATTI 13Th YANGON HANSOL |

#1 4월 14일 화요일

오늘은 띠잔을 맞아 우리가 준비한 요리를 Y 스태프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주고 맛있게 먹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방에 돌아와 샤워를 하니 참 행복하다.

좀처럼 일기를 쓰지 않는 나인데 침대에 엎드려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보니 내게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한가 보다 한다.

애린이는 오늘도 낮잠을 자고, 선진 언니는 메일을 쓰러 내려 갔고 나는 그림을 그렸다.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 둘 늘어간다. 그치만 그것 때문에 안그래도 복잡한 인생에 고민이 더해졌다기 보다는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다. 다시 사진이 찍고 싶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근데 이상하게 앞으로가 걱정이 되지 않는다.

오늘처럼만 행복했음 좋겠다.

정말 이 곳에 사는 것 같다.





I RAONATTI 13Th YANGON HANSOL I

## #2

하룻밤이 지나기가 무섭게 빌딩이 높아져간다.

개방이 되면서 외국자본들이 막 들어오고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나는 두 달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버스에서 창 밖으로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했으면, 이 곳의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 되면서 순식간에 변해가는 세상에 사람들의 순수함이 사라질까 두려웠다.

그러다 또 오늘은 이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신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미얀마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언제 어디서든 불탑이 보이면 가지런히 두 손을 모으는 이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을 보고 있노라면 이들에게 있어서 불교란 단순히 종교로서의 의미를 넘어 인생이자 삶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들이 지닌 힘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현장에 보내진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기도 하다.

정리되지 않은 이 곳이 더 좋아지고, 더 궁금해진다.





| RAONATTI 13Th YANGON SEONJIN |

## 홍's Essay

팬티를 다 내놓는 골반바지를 입은 미얀마 청년들을 봐도,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와도 그다지 놀랍지 않은 걸 보니... 미얀마 사람이 다 되었나 보다. 기대했던 즐거움도 우울함도 없었던 4월의 초반은 언뜻 권태 같기도 했다. 누군가는 이것이 미얀마에 살고 있는 증거라고 했지만 이 따분함은 나를 불안하게 했다.

뒀잔의 어느 날, 애린이와 한솔이가 그리는 그림을 따라 그려보았다. 그림 그리는 것은 내게 취미조차 될 수 없는, 그저 저 멀리에 있던 어떤 것이었는데 왜 그날따라 나도 그러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오래된 물감을 꺼내는데 문득 중학교 때 방과후교실에서 4B연필로 손을 그렸던 그때가 생각났다. 잘 그렸다면 칭찬받았던 그날을 떠올리며, 그때 잠시 내 잃어버린 취미를 들춰본 것 같았다. 그건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낱설고 해보려고 들지 않았던 것을 한번 더듬어봤을 뿐인데, 나는 그것으로부터 잘해왔던 것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성취감을 느꼈다.

이후의 나날들도 그랬다. 두려웠던 널서리 진행에서도 묘한 성취감이 이어졌고, 모든 것에 다시 열심이고 싶어졌다. 활동의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에서야 갑자기, 절대 후회하지 않을 5개월을 만들며 하루 하루 살고 싶어졌다.





| RAONATTI 13Th YANGON AERIN |

**#1.** 별다른 걱정도 고민도 없이 물 흐르듯 흘러 보낸 한달이었다. 열흘간의 락산 연휴 동안 쉴 새 없이 쉬었고, 말을 잃게 하는 더위 앞에 요동치던 마음도 생각보다 빨리 제 패턴을 찾아 잠잠해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걸어서 버스 정류장에 갔고, 그렇게 두시간을 달리고 달려 활동이 끝나면 돌아와 씻고, 빨래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잠에 들었다. 이젠 제법 능숙하게 시장에 가 과일을 사고, 골목을 돌고 돌아 숨은 맛집을 찾아내기도 한다. 팀원들과 다투지만 다시 웃는다. 또 언제 다투게 될 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게 두렵진 않다. 엄마랑 매년 싸우지만 매년 화해하는 것처럼 우린 잘 이겨낼테고, 그게 서로에게 깨지고 배우는 과정일테니까.

이방인이나 관광객이 아닌 그냥 내 삶의 일부처럼, '일상'이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나날들이었다. 때문에 때로는 지루하기도 했고 익숙해져 소중함을 놓치던 순간들도 허다했다. 처음엔 아무 고민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낯설어 받아들이지 못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전의 내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런 일상에 내가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두고 '행복하다' 거나 '소중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직은 이런 나를, 조금 두고 볼 일이다.

**#2.** 오펜라바에 갔다가 한낱에 폭우를 만난적이 있다. 아이들은 낮잠을 위해 옹기종기 모여 누워 재잘거렸고, 나도 돛자리 한 구석을 차지하고 아이들 틈에 끼어들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 시원했다. 나도 낮잠을 청해보려 하는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찜통 더위에 지쳐있던 내겐 무척이나 반가운 비였지만 아이들은 무서웠는지 울음을 터뜨리거나 서로 부둥켜 껴안았다. 요리조리 몸을 움직여 선생님 옆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턱을 괴고 누워 창밖을 구경하는 아이도 있었다. 천장의 낡은 팬이 돌아가는 소리,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뒤섞였고 아이들은 소란을 피우며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한 남자 아이가 뒤척이길래 손을 잡아 주었더니 내 새끼 손가락을 어루만지다가 잠에 들었다. 아이가 잠들자 옆에 누워있던 여자아이의 등을 토닥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스르르 잠에 빠져 들었던 것 같다.

문득 우리가 같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게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건 공기처럼 익숙해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 분명하게 존재하는 사실이었다. 가만히 등을 돌려 누우며 나는 생각했다. 어떤 걸 함께한다는 건, 별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것일수도 있구나-하고. 그날 최고로 꿀잠을 잤다.





| RAONATTI 13Th YANGON AERIN |

한동안 내가 왜 이렇게 애매하고 불분명한 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매일 매일 생각했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이 사실 안해도 무방한 활동인 것 같고,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고민들이 날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 고민들이 때로는 나를 더 낮은 자리로 데려다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무능과 무력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면 ‘친구’라는 것의 의미를 떠올려 본다. ‘친구란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이 어딘가 모르게 오글거려 싫어했다. 그래서 이제와 솔직히 고백하는 거지만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라는 라온아띠라는 이름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건 너무나 진부한 문장이었고, 친구가 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저 문장만큼, 라온아띠라는 이름만큼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되기는 어려운 말은 없다는 걸 요즘 여실히 느낀다.

난 아이들에게 성능 좋은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선물해줄 순 없지만, 손 부채질은 해줄 수 있고 땀 뻘뻘 흘리며 같이 낮잠에 들 순 있다. 우기가 되면 물에 잠기는 유치원 앞마당에 배수로를 설치해줄 순 없지만, 물 웅덩이를 같이 건너줄 순 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치솟는 빌딩과 빈부격차를 막아낼 순 없지만,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몇 번의 간지럼으로 아이들을 웃게 할 순 있다. 난 멋진 우산을 선물해주지 못하지만 내리는 비를 함께 맞아줄 수는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 뿐이다. 같은 환경에서 자고, 먹고, 그래서 무엇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에 부치는 지를 알아가려 노력하는 것. 그럼으로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누군가는 내게 그럴듯한 핑계나 합리화할 거리를 찾았다 비난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난 이 더위를, 이 답답함을, 동시에 이 행복과 행운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 살다 가고 싶다. 정말로 그러고 싶다.

p.s. thanks to 함께 고민하고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해준 한솔언니, 나의 변화를 나보다 더 잘 알아차리고 응원해주신 선진언니, 벌칙 걸려서 심부름 나갈 때 수다 떨어준 종옥 오빠, 고민이 없으면 좋은거라고 말해주던 ‘동년배’ 태규.





| RAONATTI 13Th YANGON JONGOK |

아침 9시가 안 된 시간, 널서리를 가기 위해 탄 버스에서 밖을 보았다. 전광판에 보이는 현재 온도 33도. 근데 아마 잘못된 것이라고, 더 높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팀원들. 응? 이런 날씨 참. 낯설다? 이렇게 우리만큼이나 치열하고 뜨거운 날씨 속에서 지낸 지난 시간들이었다.

여러 의미, 모습, 생활에서 3월과 정말 많이 달랐던 4월. 이제 한 달 살았다고 제법 적응을 하고 띠잔이라는 긴 휴일 덕분에 쉬면서 나를 수없이 되돌아 보았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멈춰버린 것 같아 힘겨워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동민 간사님과 통화에서 지나간 시간들이 아쉽지 않냐는 말씀에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 했다. 문득 과거 회상에 잘 잠기곤 하는 내가 이곳에서의 시간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솔직히 남은 날들)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뜨거운 날씨? 관계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 그래도 분명한 건 돌아가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다. 즐겁고 행복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나는 이 곳에 있었고, 이 곳에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응,그래그래.”만 하고 있지만, 그 맑은 눈을 바라보는 것이 좋고 아이들이 웃으면 나도 즐겁다. 그렇게 물들고 스며드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조금 미소가 지어지는 걸 보면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구나, 그리고 감사했던 추억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에 다행이다.

팀원들도, 나도 참으로 애썼다. 고맙다.



## ESSAY



I RAONATTI 13Th YANGON TAEGYU I

더디게 가고 고민할 거리가 많았던 3월과는 달리 빠르게 지나간 4월이었다. 매일 매일 버스 타고 사이트를 갔다. 오는 똑같은 일상에서 지루함 밖에 찾지 못하다가 밖에서는 같이 가는 스태프들과의 대화, 아이들과의 장난. 숙소에서는 형과 누나들의 사소한 행동에서 재미를 찾게 되었다.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며, 같이 움직이며 보는 경험은 어디를 가나 나 자신부터 보던 나에게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솔직히 불편한 점도 많지만 그것도 다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점이라 생각한다.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보다 많은 경험을 하며 후회 없이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개인활동을 해도 웃어넘겨주는 형, 누나들 앞으로 즐겁게 보냅니다.



재주베, 고래워!

RaonAttē 13<sup>th</sup> MYANMAR YANGON

그 두번째 이야기

-The End-